

## 한국 청소년에게 과학 날개 달아준 인텔 국제과학경진대회



인텔 재단이 후원하는 인텔 국제과학경진대회(Intel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이하 인텔 ISEF)에서 한국 고등학생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세계 59개국 1,611명의 최종 참가자들이 모여 과학, 수학, 기술 분야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한국에서는 13명의 최종 참가자들이 출전하여 그 중 4명의 학생이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수상자는 창덕여자고등학교의 주계현 양(17), 흠스쿨 프로그램의 허준석 군(18), 담양고등학교의 최현아 양(19)과 신수빈 양(19)이다.

창덕여자고등학교의 주계현 양은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부들솜의 환경친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로 전체 1,611명의 최종 참가자 중 19명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부문상'과 '그랜드 어워드' 1등 상 수상 및 상금 8,000달러를 수여 받았다. 특히 주계현 양은 아시아 지역 학생 중 유일하게 '최고 부문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최현아 양과 신수빈 양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구들장의 특성에 관한 팀 프로젝트로 '그랜드 어워드' 지구과학 부문 2등 상 및 각각 상금 1,500달러를 수상했다.



허준석 군은 단백질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는 이질중합체 모형의 최적 구조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그랜드 어워드' 물리와 천문학 부문 4등 상과 상금 500달러가 주어졌다. 특히 허 군은 구글에서 수여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기여하는 과학 연구 부문' 특별상을 수상해 상금 10,000달러도 함께 수여 받았다. 이는 특별상 중 가장 최고로 꼽히는 상으로 허준석 군 외 2명에게 주어졌다.



인텔 ISEF 참가자들은 인텔 ISEF 대회와 제휴를 맺은 전 세계 539여 개 대회를 통해 해마다 선출된다. 한국에서는 국제청소년과학창의대전(Korea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이하 KISEF)이라는 예선 대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인텔 ISEF에 참가하고 있다. KISEF는 2010년 처음으로 신설된 국내 최고의 과학 축전으로, KISEF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개인 및 팀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의 훈련 후 인텔 ISEF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